

##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은 어디?

노수연 부연구위원

최근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개혁개방 이후 경제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지역을 꼽으라면 단연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장쑤성의 위상이 단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얼마 전 <11.5 규획기간 중국 성·시의 경쟁력 보고>를 발표했는데,<sup>1)</sup> 여기에서 장쑤성은 2010년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비즈니스환경과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산업 경쟁력 등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성·시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2006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 장쑤성은 상하이시, 광둥성, 베이징시에 이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상위 3대 지역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장쑤성이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사회과학원 측은 장쑤성이 높은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근거지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연해지역에 위치한 장쑤성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규모가 커서 2003년 이후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고, 특히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의 제조기지 및 연구개발(R&D) 센터 다수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일례로 삼성, 도요타, 후지쯔, 캐터필러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R&D센터가 장쑤성에 소재하고 있다.

장쑤성 성장의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면, 장쑤성 정부의 역할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9년도에 발표된 동일한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첫째, 재정지출, 공무원의 역할, 정부소비 등을 포함하는 경제발전능력, 둘째, 물가조정, 소비격차 조정, 세수규범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의 규제 조절능력, 셋째, 지역사회 서비스시설, 각종 사회보험, 실업구제 등을 포함하는 경제보장능력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 장쑤성은 종합적인 정부의 역할 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해 정부가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렇다면 단순히 성 차원에서만 경쟁력이 있을까? 얼마 전 발표된 '2011년 중국의 20대 부자 도시 순위'를 살펴보면, 장쑤성 소재 주요 도시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개 성·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 포함된 성은 저장성(6개)이지만, 장쑤성도 3개 시가 선정되었으며 모두 10위권에 들어 영향력을 과시했다.<sup>3)</sup>

1)李建平 외. (2012). 「中国省域竞争力监皮书：“十一五”期间中国省域经济综合竞争力发展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李建平 외. (2009). 「中国省域竞争力监皮书：中国省域经济综合竞争力发展报告(2008-2009)」. 社会科学文献出版社.  
3)「人民网」(2012. 3. 29). 「中国最富20城市排行榜出炉 苏锡常排名前十」.

가장 높은 순위에 선정된 시는 쑤저우(蘇州)시이다. 쑤저우시는 4,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성(古城)으로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 대외무역, 상업, 물류의 중심지이고,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쑤저우시는 상하이시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상하이시의 배후지로서의 각종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3위를 차지한 쑤저우시에 이어 우시(無錫)시가 5위를 차지했다. 장쑤성 남부에 위치해 태호(太湖) 유역의 교통의 요충지인 우시시는 예부터 태호에서 나는 물고기와 쌀로 유명한 지역이자, 중국의 15대 경제 중심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10위를 차지한 창저우(常州)시는 우시시 옆에 위치하면서 중국 근대공업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그림. 쑤저우시(左), 우시시(中), 창저우시(右) 전경

자료: 「中國日報網」(2012. 3. 28). 「組圖：中國最富20大城市排行榜出爐」.

리스트에 오른 이들 3개 시는 이른바 '쑤시창(蘇錫常)'으로 일컬어지면서 장쑤성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모두 상하이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장강(長江) 남부에 위치해 있다. 결국 아직은 장쑤성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북부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개선될 때 장쑤성은 향후 중국 제1의 성(省)을 욕심낼 수도 있을 것이다.